



대담한 기교 · 서정적 예술성

‘한국의 비르투오소’ 김규연 피아노 리사이틀, 19일 전주한벽문화관서

피아니스트 김규연의 공연이 오는 19일 오후 5시 전주한벽문화관의 기획초청공연을 통해 열린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한국의 비르투오소 김규연 피아노 리사이틀’로, 부제목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consolation(위로, 위로)’으로 정했다. 김규연은 2006년 더블린 국제 콩쿠르 준우승 및 최고의 협연자상과 모차르트 연주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또한 음악계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또한 예원학교 재학 당시 바르톡·카발레브스키·프로코피에프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일찍이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현재 Young Classical Artists Foundation of the Music Director 및 프레스토 아티스트 소속 아티스트로 활발한 활동중이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번 공연은 연주 실력이 매우 뛰어난 대가를 일컫는 비르투오소 김규연만의 대담한 기교와 서정적인 예술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시작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슈베르트의 대표곡 ‘개의 즉흥곡(Four Impromptus, Op. 142)’으로 화려하게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 모차르트 특유의 풍부한 사운드가 느껴지는 ‘피아노 소나타 4번 내림마장조(Piano Sonata No. 4 in E-flat Major, K. 282)’를 선보인다. 다음으로 곡의 유명세에 비해 흔히 연주되지 않는 리스트의 작품들이 이

어진다. 바그너/리스트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Liebestod from Tristan und Isolde, S. 447)’과 슈베르트/리스트의 ‘모든 영혼의 안식을 위한 연도문(Litanei auf das Fest Aller Seelen, D. 343)’이 연주되는데 특히 마지막 곡은 그레그의 섬세한 터치로 관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클래식보다 쉽게 이해하고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직접 곡 해설을 곁들여 클래식 애호가와 입문자 모두 만족스러운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은 전석 5만 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공연에 관한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콘텐츠사업팀(063-280-704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오늘 '전주영화학교' 오리엔테이션 진행

(사)전주영상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전)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층 공유공간 '동근 숲'에서 2021 전주영화학교 수강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생과 강사진, 전주시 문화정책과 등에서 참여해 전체 강사와 수강생 간 상견례 및 약정 체결, 운영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듣는다. 전문 영화인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지역의 영화인을 대상으로 영화연출 교육과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멘토링, 주제 특강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전주영화학교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북도내 거주 및 활동하는 7명의 영화연출자를 선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개월 과정의 영화연출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전주영화학교는 체계적인 교육과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지역영화 콘텐츠와 전문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전주영화학교를 수료한 수강생들의 작품을 영화화하는 제작 연계 시스템 마련을 통해 전주 영화의 제작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무주 마애삼면보살좌상’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고려 후기 이후 불상 양식 일면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의 의미 커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

에서 역사를 갖고 있는 불교조각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 개의 불두가 올라가 있으며, 탑 상륜부 형태의 구조물이 특징이며, 탑 상륜부 또는 화불 형태에도 추정된다. /무주=전문선기자

고려 후기 정밀하게 만들어진 석상으로 추정된 무주 마애삼면보살좌상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실전면 대불리 신88-1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이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기로 원안 가결되면서 4일부터 30일간 지정, 예고됐다. 예고 이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무주 한풍루 보물 승격에 이어 잇따른 남보다 무주군과 군민들은 무주가 고품격 문화·예술·역사의 공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무주군 실전면 대불리에 자리한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은 민중지산 석기봉 아래에 조성한 마애불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고려 후기 이후 지방화된 불상 양식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

박물관 정보, 쉽고 빠르게 이용한다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개편... 반응형 웹사이트로 접근성 높여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이 박물관 누리집을 개편해 접근성을 높였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한 누리집은 반응형 웹사이트로 국문, 영문, 어린이박물관 모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했다. 누리집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해 이용하기 쉽다. 또한 IE(Internet Explorer),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브라우저 등을 지원해 인터넷 환경에 제약 받지 않고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통합 검색서비스를 도입, 인기 검색어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원하는 박물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 역시 주목받는 부분이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한 번의 인증만으로 박물관 문화 행사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예약하기 위해 박물관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SNS 통해 한 번의 인증으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어린이의 문화향유를 위해 어린이박물관 운영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증가했다. 어린이박물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해 관람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차 10:00~11:30, 2회차 13:00~14:00, 3회차 14:30~15:30, 4회차 16:00~17:00로 회차 당 보호자 포함 50명이 관람할 수 있다. 홍진근 관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계기로 국립전주박물관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창조거점으로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환경문제 ·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깊은 울림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展 내달 11일까지 팔복예술공장서



(재)전주문화재단은 환경의 날을 앞두고 그린리네상스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展을 7월 11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팔복예술공장 전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환경의 날을 앞두고 그린리네상스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展을 7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한다.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접철된 현대 소비문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크리스 조던은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100회 이상의 전시와 강연 등을 진행한 바 있는 환경예술 분야의 독보적인 작가다. 대표적인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찬 알버트 로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표현한 그의 작품들과 대비되면서 현 인류가 초래한 환경 문제와 생태적 비극을 명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문화재단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사진 및 영상 작품 총 60점과 함께 작가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알버트로스’가 상영된다. 또한 유아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환경의 날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자연순환 환경교육’, 탈플라스틱 사회 정크아트 특별 전시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에 관한 강사와 환경과 예술의 접점을 찾는 그린포럼 등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과 오창환 전

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그린리네상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구환경의 위기를 예술로 전하며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크리스 조던의 작품을 전주에서 선보이게 되었다”며 “이 전시를 계기로 기후재앙에 맞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발적 움직임을 만들고 생태위기에 대한 인류의 공감대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매개인 예술의 힘을 깨닫는 전

시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람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전북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린리네상스의 두번째 프로젝트는,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을 환경문제와 연결해 풀어내는 그린작가전이 올해 10월 팔복예술공장에서 마무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은경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미안마 사랑 티셔츠 구매’ 캠페인 동참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미안마 사랑 티셔츠 구매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재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또한 지난 2일 재단 신규 사무처에서는 미안마 민주화 응원 세 손가락 경례 퍼포먼스를 통해 미안마 국민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미안마 전북학생회와 행복한아시아는 미안마 사랑 티셔츠 제작·판매 캠페인을 열고 있다. 수익금은 전액 전북지역 미안마 유학생의 생활비 지원과 미안마 분교 주민들에게 의료·방역물품 전달을 위해 사용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정취한 6월 민주항쟁 정신처럼 미안마에서도 민주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재단의 캠페인 참여가 미안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은 JB문화공간, 올 첫 문화살롱 회원의 밤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의 회원제 아카데미 ‘JB문화살롱’의 올해 첫 회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지난 2일 총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문화살롱 회원들과 서한국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 축하 및 올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왕성한 연기와 음악 활동을 펼치며 최근 MBN ‘보이스킹’의 심사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탤런트 김성환씨를 초청해 연기 인생과 음악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노래와 만담으로 즐겁게 풀어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JB문화공간에서는 모든 공연 및 행사 전,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일 바이올리니



스트 조유범의 ‘파워 클래식-베토벤’, 9일과 16일 재즈칼럼니스트 황덕호의 재즈 강연, 17일 재즈보컬리스트 윤상의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JB문화공간의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과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www.jbcenter.or.kr)와 JB문화공간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성 기자